



박소현의 섹.시.토.크

몇 주 전 급격히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요즘, S는 행복하다.

S네 부부는 주말부부다. 남편이 경상도 최남단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 벌써 4년 전의 일이다.

말이 주말부부이지 사실은 주말에도 보기 힘들 때가 많다. 회사일이 많아 못 올 때도 있고, 오고가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또 올라오지 못한다.

한 달 중 같이 잠자리에 드는 밤이라고는 고작 나흘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처음 주말부부를 시작 했을 때는 주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섹스를 했다. 그때는 결혼 5년차로 접어들던 때라 부부관계가 좀 시들해졌을 때였는데 오히려 주말부부가 되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졌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러는 것도 잠시, 다시 예전의 시들한 사이로 돌아가고 말았다. 남편은 그래도 부단히 노력하는 눈치였지만 S가 별로 감응이 없었다.

급기야 지금은, 오면 반갑기는 하지만 안 와도 그리 섭섭하지는 않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매일 남편과 한 이불 덮고 자는 부부도 결혼생활 10년차면 한 달에 한 두 번 밖에 안하거 일수

라니 통계적으로 따지면 그다지 처지는 헛수도 아니라고 스스로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번 주말에 다니러 온 남편에게 S는 주식이며 펀드 통장들을 보여주며 그동안 당신이 번 돈으로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열을 올리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은 게 기록하지 않아?”

“여보, 섹스도 적립식 펀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섹스도 빼먹지 말고 열심히 해야 나이 들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구.”

“기특해, 모으느라 수고했어.”

“어쩐지 마치못해 대답하는 눈치다.”

“뭐 볼만 있어? 볼만 있으면 말 해, 말 해 해야 알지.”

“한참 채근하자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입을 연다.”

“여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자리 한 게 언제 지 알아?” “언젠대?” “10월이야. 지금은 12월이고.”

섹스는 적립식 펀드다

S도 속으로 찔끔했다. 그렇게 꼬아보니 정말 문제는 문제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여보, 섹스도 적립식 펀드야.” “그게 무슨 소리야?”

“빼먹지 말고 매달 일정한 돈을 모아야 큰돈이 되는 것처럼 섹스도 빼먹지 말고 열심히 해야 나이 들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구. 우리가 이대로 나이가 들면 어떤 부부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물으니 S는 할 말이 없었다. 어떤 부부가 될까? 모르긴 몰라도 소 닭보듯 하는 부부가 될 확률이 높았다.

“통장에 돈은 좀 있겠지. 대신 몸과 마음은 엄청 허전하겠지. 우리 부부는 지금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까먹는 관계 같아.”

S는 그제야 자신과 남편이 잘못된 재테크를 했음을 깨달았다. 재산의 증식은 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은 없고 돈만 있었던 것이다.

돈에만 복리가 붙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도 복리라는 게 붙는다. 복리를 불려려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안아주어야 한다.

혹시 코스피가 하락하는 날이 오더라도 그런 부부라면, 엄청난 행복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연애칼럼니스트〉

뉴스퀴즈

93. 한국축구 월드컵 대표팀 사령탑에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이 감독은 내년 2월 시작되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경기부터 대표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7년 만에 국가대표팀의 국내와 감독시대를 연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 ①허정무 ②김 호 ③차범근 ④김정남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4일(음 11월 5일 壬午)

36년생 제사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48년생 동료들 친한하면 공은 내게로 온다. 60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시

37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 49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나 임지는 없다. 61년생 나에게 불리한 일은 모두 내

38년생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0년생 도화기가 재발하면 망신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62년생 흥분은 금물이나

39년생 신체적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5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63년생 예상치 못했던

40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수도 있다. 52년생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면 사람은 두 배로 되리라. 64년생 덕이 없고

41년생 지출이 발생하나 부자로 생각하라. 53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이 있고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5년생 작은 일도 필승의 각

42년생 재물과 건강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54년생 불연이연 승사가 휘말린다. 66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다. 78년생

43년생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55년생 건강을 위해 노력하라. 목 관절은 격정하라. 67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나 자만은 하지마라. 79년생 소신껏 행동하라.

44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나지만 끝내는 기쁨이다. 56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68년생 애정 사람과 금전 거래는 절대로 하지마라. 80년생 애인과 다름은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이다.

45년생 작은 것은 내주고 귀중한 것을 취하라. 57년생 일일일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버리는구나. 69년생 귀인이 도움을 주지만 무리하는 자신이 하라. 81년생 유효도 중요하나 자기교육이 더 중요 하리라.

46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 58년생 협조자가 나오나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70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순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다. 82년생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하니 대화 가 필요하다.

47년생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59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멋을 아는 시기이니 행동하라. 66년생 길보다 흙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중 하라. 83년생 기강치외한 황제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가 가 충분하다.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검색설정 키워드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의 MBC 기자 시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BBK 사무실 인터뷰 뉴스를 재편집한 이른바 '박영선 동영상'이 클릭 세례를 받고 있다.

이명박 BBK사무실 인터뷰 '박영선 동영상' 클릭 세례

개제한 해당 사이트뿐만 아니라 제작자, UCC 전문업체, 포털사이트,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와 동영상 파일은 다운로드한 일반 네티즌까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색즉시공 2에 출연한 배우 이화선(27)의 화보 촬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키니를 입은 이화선의 8등신 몸매를 보려는 네티즌도 많았다.

이외 P2P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국내 이용자들이 만든 윈도 XP 해킹판 블랙버전, 밥을 먹거나 길을 건다가 갑자기 잠이드는 발작적 수면 증상을 보이는 '기면증'으로 공익 근무 관정을 받은 그룹 태사자 출신의 박준석(28) 등도 검색어에 올랐다.

바둑소식. '초단 돌풍' 한상훈 승단. 초단 돌풍의 주역인 한상훈 초단은 2단으로 승단했다. 한국기원은 13일 김광식 5단, 유재성 3단, 진동규 3단, 박정근 2단, 윤찬희·한상훈 초단 등 6명이 승단했다고 발표했다.

일반부 결승전. 송홍석 6단 백 △가 흑의 근거를 빼앗는 정확한 응징으로 흑을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 흑 53부터는 고단한 여행일이다.

바둑소식. '초단 돌풍' 한상훈 승단. 초단 돌풍의 주역인 한상훈 초단은 2단으로 승단했다. 한국기원은 13일 김광식 5단, 유재성 3단, 진동규 3단, 박정근 2단, 윤찬희·한상훈 초단 등 6명이 승단했다고 발표했다.

굿모닝 잉글리쉬 <1055>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이 주소로 저를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오하오우 니혼고 <1055> 大(おお)きなお世話(せわ)だよ、あっち行(い)けよ。 쓸데없는 참견 말고, 저리 가.

니하오 쑹구위 <32> 我(わ)饿了(ら) 나 배고파

한자 이야기 <672> 詭(괴)遇(우) 속일 계, 만날 우